



본회 전·현직 지회장 친목모임 결성

- 명칭은 '한국양육협회 지회장 친목회', 목적은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

본회 전·현직 지회장이 한자리에 만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 마련됐다.

본회 전·현직 지회장 16명은 지난 7월 9일 충남 천안 소재 흥부촌 가든에서 모임을 갖고 전·현직 지회장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모인 지회장들은 모임의 명칭을 “한국양육협회 지회장 친목회”로 할 것에 동의하는 한편 초대 친목회장에 김범호(천안지회 지회장)씨를 선임했다.



김범호 초대 친목회장은 “과거 양육협회 지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들과 현재 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이 모임의 회원이며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 외에는 어떠한 목적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친목 및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이 모임을 통해 얻어진 좋은 정보들을 각 지회 회원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범호 친목회장은 부회장에 하석도(진주지회 지회장)씨를, 총무에는 나호주(광주지회 지회장)씨를 각각 선임했으며 모임은 분기별 1회, 회비는 매번 모임시 2만원씩으로 결정했다. 또한 임원 임기는 1년 단임제를 채택해 전·현직 지회장들이 골고루 돌아가며 친목 도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안점동 전주지회장은 “금번 모임이 회원들에게 또 하나의 양육관련 단체가 생겨나는 것으로 오인받아 우리의 목소리를 자아내게 할 수도 있다”며 “이 모임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친목과 정보교류의 원칙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친목회 회원들 역시 어떠한 상대성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친목 모임이라는데 합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모임 후 실시된 자유 토론 시간에는 ▲ 각 지회 운영 방안 ▲ 국산농용 홍보 방법 ▲ 각 개인별 농장 운영 방안 ▲ 농장 운영시 환경 문제에 관련된 사항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한국양육**